

감당 안되는 빚, 회생제도에 길이 있다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법인이든 개인이든 도산제도(회생, 파산)를 신청한다고 하면, 흔히 그 회사나 개인이 아예 경제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한다. 신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보통 사업체나 스스로의 재정적 상태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한 뒤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법무법인을 찾아 도산과 관련한 상담을 받는다.

물론 파산은 경제적인 재기가 불가능할 때 신청하는 제도가 맞다. 법원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채무자의 자산이나 미래에 벌어들일 예상 수입이 너무 적어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월급 등의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장래에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파산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파산자의 지위 자체가 경제적, 사회적 활

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한다.

회생(回生)절차는 그 이름대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으려는 법인이거나 개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회생 절차 내에서 약 10년간 얼마의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의 채권 중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채권들은 면책시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이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담보권자조 3/4이상, 채권자조 2/3이상)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회생절차를 유효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 때 ▲회생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법원 예납금,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을 때 ▲현재는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전문

가를 찾아야 한다. 즉, 회생절차는 시야에 베풀 끝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베풀 끝으로 달려가지 않게 운전대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많은 채무자들은 아직도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도산 절차를 찾는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만 잘 만난다면 회생절차를 신청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재정적 파탄 상태가 길어질수록 채권자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고, 수중에 시재가 남아있지 않아 예납금 등의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무엇보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제활동으로 맺어진 다수의 채권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다면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선택의 여지없이 파산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의 힘으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힘에 부친다면 전문가를 찾아 도산제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

/법무법인 바른

뜨거운 감자 ‘공매도 논란’ 올해도 이어지나



기지수첩

원관희
(자본시장부)

해가 바뀐 계묘년에 공매도 논란이 가라앉을까. 지난 한 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침체국면이 심해지자, 공매도 폐지를 둘러싸고 개인과 해외 기관 간에 대결 양상이 나타났다. 개인은 불공정 거래의 하나로 공매도를 손꼽으며 폐지를 주장하고 해외기관들은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매도의 전면 재개를 요구했다.

국내 증시의 공매도 규모는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부터 제한적으로 재개된 그 규모는 지난해 총 143조6910억원으로 2021년(96조9177억원) 대비 48.2% 늘어났다. 코스피 시장의 공매

도 규모는 2021년 대비 54.2% 증가한 110조790억원에 달했으며,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규모는 30.9% 늘어난 32조61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때문이다.

투자자 별로는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컸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전체 공매도의 71%를 차지한 반면 기관은 25.9%, 개인은 2.1%에 그쳤다. 코스닥 시장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관은 27.2%, 개인은 2.3%에 머물렀다.

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국내증시의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놀이터라 할 수 있다. 결국 개인들에게도 외국인들과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이야기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매도를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에 불을 지피는 셈이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증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의 공정 거래를 해치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론을 이어갈 것이다. 물론 공매도가 증시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증시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주장이 시기적절한 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었다. 어느 한쪽의 손을 선뜻 들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공매도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한 측면을 해결하는 노력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일 (음 12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복 많이 받으라는 축복의 마음을 전달. **48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혜택으로 돌아온다. **60년생** 불행에도 기회가 오니 기다려 보자. **72년생** 이유 없는 과도한 투자를 자제. **84년생** 힘을 기르는 에너지는 자기분야의 공부.



37년생 내 발등을 찍는 것은 내 도끼이다. **49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61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73년생** 자신이 가는 길이 최선이라 믿어야 한다. **85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이니.



38년생 곧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하자. **5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는 것도 좋다. **62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르니 느긋하게. **74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6년생** 선택이 잘못되어 슬프다.



39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칭찬은 큰 성과로 돌아온다. **51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 수 있다. **63년생** 병도 약도 다 내 기가 나뉘다. **75년생** 다툼이 생겨도 도와주는 이가 있어 다행. **87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



40년생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52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달래준다. **64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76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해 나간다. **88년생**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지출을 하자.



41년생 마음이 혼란하니 한밤에 독서로 길을 찾아보자. **53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5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는 않는다. **77년생** 갈 길이 멀어도 일단 시작. **89년생** 투자는 조언을 받아보라.



42년생 조금전일로 추억이 되는 과거이다. **54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66년생** 실력으로 판단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성실함으로 해낸다. **78년생**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90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자.



43년생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니 일이 순조롭다. **55년생** 상황에 맞추어 장단점을 찾아보면 길이 열린다. **67년생** 환경을 탓하여 주저앉지 않도록. **79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91년생**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도 인생사.



44년생 결과를 알 수 없는 게 인생사 누굴 탓하랴. **56년생** 깊은 밤은 새벽을 위한 준비. **68년생**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순간 성공은 시작. **80년생** 동료와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92년생** 조상님 쌓은 공덕이 내게로 수해가.



45년생 지치고 불행해도 가족을 생각하고 힘을 내자. **57년생** 은행적금을 들어보자. **69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81년생** 피곤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93년생** 남에게 준 손실은 부메랑처럼 나를 쫓아온다.



46년생 집안의 갈등이 생겨도 일단은 견뎌내야. **58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라. **70년생** 금전 거래는 감정으로 하지 말아야. **8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94년생** 연인도 남이니 무리한 선을 넘지는 말아야.



47년생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방법. **59년생** 인생은 각본 없는 드라마. **71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할 일을 찾자. **83년생** 무리하지 않으면 재물도 내편. **95년생** 위기를 돌파의 지혜는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김상회의四季

만도초월



어려운 시국이지만 태양은 늘 누구에게나 비추게 마련이듯 공평하니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혹시 만도초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익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필자는 이 사자성어를 아낀다. “굽은 길에서 선두를 추월한다.” 라는 뜻이다. 곧장 뻗은 편한 길이 아니라 굽은 길, 저쪽이 보이진 않지만 그 굽은 길 편하지 않은 길을 위기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뜻으로 인생사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각오를 보여주는 말이다.

보통 회사경영이나 나라경영을 하는 지도자들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분투노력하여 상대나 어려움을 뛰어넘자는 뜻도 되겠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내내 그 생각이 들었다. 전력이 비교가 아니게 약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과 열심을 다 하여 경기를 하는 각 나라의 대표 팀들도 모두 이와 비슷한 결연한 각오를 뒀었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자울 맥 빠진 증시 등등 팍팍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들 역시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 계묘년은 물상적으로 보자면 ‘검은 토끼의 해’라고 풀 수 있겠다. 육십 간의지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니 그리 보는 것이다. 계묘는 천간과 지지의 속성상 습기가 많다.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잘 피듯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긴다. 우울증이 생기거나 재발되기도 한다. 물론 사주명조는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일단 올 해 천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얘기다. 이러한 해우년이 누군가에게는 호운으로 작용하고 누군가에게는 과유불급이 되기도 할 것이다. 운수는 해 달 날 시가 분명히 정하여 있으니 잘 살펴서 피할 것은 피해 볼 일이다. 만도초월의 시작은 이러한 살핍에서부터 시작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09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0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쉼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1				2	
	9	4				7	8
2				7			1
	5	7	3		8	6	4
9			4				2
	6	8				5	2
		5				4	

2		4	8		6	1	9
9			2		1		5
			1	3			
			5	7			
5			3	9			7
8		2	6		5	4	3

정답

8	9	1	5	8	2	6	7
8	6	7	8	9	2	5	1
2	2	9	7	1	6	8	9
2	2	8	1	7	9	9	8
6	7	9	8	2	8	2	1
1	9	8	6	2	9	8	7
9	8	2	8	1	7	6	9
7	8	2	9	6	8	1	5
9	1	6	2	9	7	2	8

8	1	7	9	2	9	2	6	8
2	6	9	8	1	7	2	9	8
2	9	8	6	2	8	1	7	9
1	8	2	2	9	9	6	8	7
9	9	8	2	7	6	8	1	2
7	2	6	8	8	1	9	2	9
9	7	2	1	8	2	9	8	6
8	2	9	7	6	2	8	9	1
6	8	1	9	9	8	7	2	2

과나이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